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토종 바이오시밀러 위상 높여 유럽서 임상 결과 공개 '주목'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들이 유럽 학회에서 국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에서 임상 결과를 나란히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자리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의 제품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 533명에 바이오시밀러로 투약을 변경하는 스위칭 결과,

6개월 경과 시점까지 임상적으로 약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총 1461명의 에타너셉트,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맙 처방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분석연구에 따르면, 처방 후 6개월 및 1년간의 치료 경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과 오리지널 제품군 간 질환 변동 수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김철 전무는 "당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가 의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지속 개발하여 유럽의 더 많은 환

자들이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자가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지속
셀트리온
임상 데이터로 학술 마케팅 돌입

역질환 치료제 3종은 바이오젠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 첫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14만 5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처방됐다.

셀트리온은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SC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이번 학회에서 최초 공개했다.

램시마SC는 정맥주사 형태인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환자가 피부 아래 지방층에 자가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형으로 개량한 제품이다. 인플릭시맙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 피하주사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36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따르면 투여 30주까지 램시마SC와 램시마(정맥주사제형 IV) 투여군 간 유사한 안전성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램시마SC투여군에서 램

시마 IV 투여군 대비 근소하게 높은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발한 학술 마케팅에 돌입한 상태다.

셀트리온 임상개발본부 이상준 수석 부사장은 "이번 임상에서 램시마SC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편의성이 높은 또 다른 부가적 처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각종 의료비를 제거해 경제성을 충분히 갖춘 램시마SC를 세계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분30초' 콜레스테롤 측정시스템 中에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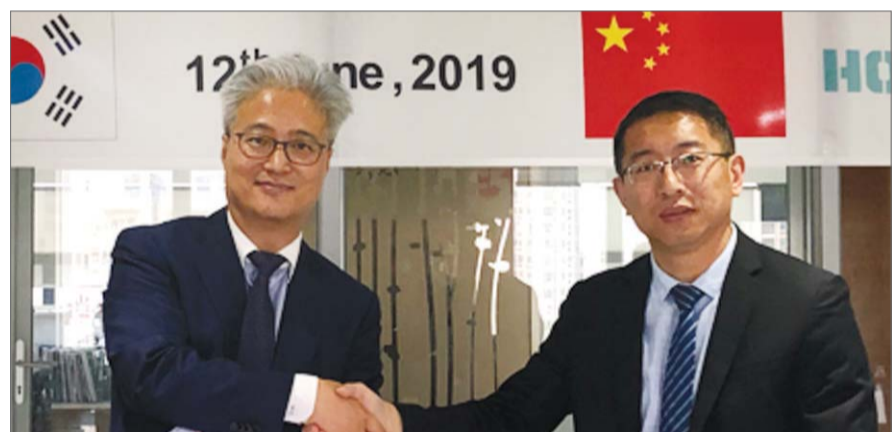
GC녹십자엠에스, 공급계약 체결
고밀도·중성 지방까지 측정 가능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12일 중국 호론(Horron)과 콜레스테롤 측정시스템 '그린케어 리피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호론은 체외진단장비 및 진단시약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중국 전역에 걸친 영업망을 통해 연평균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4년간 총 978만 달러(약 115억원) 규모이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엠에스가 반제품 공급 및 기술을 제공하고, 호론이 현지조립생산(CKD) 및 판매를 담당한다.

'그린케어 리피드'는 혈액 샘플 채취 후 2분 30초 내에 총콜레스테롤(TC)과 고밀도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TG) 등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안은억 GC녹십자엠에스 대표(왼쪽)와 잭 왕 호론 대표가 지난 12일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호론 본사에서 콜레스테롤 측정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와이파이 등이 지원돼 휴대성이 뛰어나고, 환자 데이터 저장도 쉬워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호론과 당화혈색소 측정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해 제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현장진단(POCT)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C녹십자엠에스 안은억 대표는 "지난해에 이은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 중

국 현장진단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가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중국산업정보망에 따르면 중국의 현장진단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20% 이상 커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6개월 체류 외국인, 건보료 11만원 낸다

다음달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화

다음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

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옥수수 수확하고 자연에서 놀아요”

광동제약, 가족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광동제약은 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제12회 옥수수 가족환경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마을에서 열린다. 야외 캠핑을 비롯해 옥수수 수확체험,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쁜 일상과 자녀 양육으로 피로가 쌓인

부모를 위한 힐링 워크숍도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26일 까지 광동제약 홈페이지의 행사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회사 페이스북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동기와 광동 옥수수수염차 또는 옥수수와 관련된 간단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동제약은 심사를 통해 총 25가족(약 10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1일 회사 페이스북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광동제약이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배뇨장애 건강강좌 개최

이대서울병원 이 개원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중강당에서 '나 이 들어도 배뇨장애 없이 스타일 있게 살고 싶다'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1호 여자 비뇨의학과 의사인 윤하나(사진) 교수가 강의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우산·타월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연세대

자체 플랫폼으로 '난청 치료제' 신약 개발

대웅제약이 자체개발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소음성 난청치료제 혁신신약(First-in-Class) 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오픈콜라보레이션'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연세대학교와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소음성 난청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1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후보물질 도출 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는다. 이온채널은 생체막내외의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로 이온의 이동은 생체에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고 신경 흥분 등 많은 신호전달에 관여해 신경계 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